

빛고을 찾은 달구별 ... 소통과 공감의 문을 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에 나선 대구지역 청년들이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9

달빛소나기

대구 청년 41명 광주 방문, 공공미술투어·달빛나눔 행사... 11월엔 대구서 '달빛 소나기'

“넓고 넓은 밤하늘 수많은 별들처럼/ 우리 모두 다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즐거운 노래 행복의 노래 불러요/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가수 나미의 ‘영원한 친구’ 중)

광주와 대구 청년들이 문화로 뭉쳤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손을 다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흥겨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바탕 춤판을 벌이는 등 제대로 어울려 놀았다.

두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2019 달빛소나기’ 행사가 지난 29~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을 비롯한 광주 일대에서 열렸다.

‘달빛소나기’는 광주일보와 영남일보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광주·대구지역 청년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간 상생의 가교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달빛소나기’는 ‘달구별’, ‘소통·나눔·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나기’를 합친 단어다.

첫날인 29일 대구지역 청년 41명은 광주를 방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돌며 6종의 공공미술품에 대한 ‘공공미술투어’ 등을 체험했다.

대구지역 참가자 신선희(여·22)씨는 “말로만 들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실제로 보니 방대한 규모와 세계적인 공연·전시 시설에 놀라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신양파크호텔로 이동한 대구 청년들은 광주청년 80명과 합류해 소통프로그램 ‘달빛 나눔’ 행사를 가졌다. 조별로 인사를 나누는 두 지역 청년들은 서로 다른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친목의 시간을 가진 청년들은 이어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를 역임한 길중

‘천만 관객 영화’ 주제로 강연 동서간 지역연대 넓히는 기회 발산마을·가사문학관 등 방문

철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길 교수는 이날 ‘1000만 관객 영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순서로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두 지역 청년들이 친목을 다지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지역 참가자 윤단강(여·22)씨는 “문화에 관심 있는 또래들이 모여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달빛소나기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동서간 지역감정을 허물고 지역의 연대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첫날 일정을 소화한 대구청년들은 둘째날인 30일 광주 문화투어에 나섰다. 광주 서구 양3동 청춘발산마을을 시작으로 북구 환벽당, 가사문학관을 방문했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광주 문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대구의 청년문화기획 단체인 ‘청춘빛’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김다솜(여·22)씨는 “과거와 현재의 광주문화를 두루 살펴보면서 광주가 왜 예향의 도시라 불리는지 알게 됐다”며 “가을에 대구에서 열리는 달빛소나기에 많은 광주 청년들이 참여해 대구의 문화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소나기는 오는 11월 광주청년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19 달빛소나기’ 특강강사로 나선 길중철 한양대 교수가 ‘1000만 관객 영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1.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3동 청춘발산마을을 찾은 대구 청년들이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살펴보고 있다. 2. 지난 2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2019 달빛소나기’ 개막행사에서 라이브 퍼포먼스(live performance) 공연팀 ‘비스타’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